



일부보험(underinsurance) 증가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이아름 연구원

■ 최근 Swiss Re 보고서는 일반손해 위험(property risk)¹⁾의 일부보험(underinsurance)²⁾이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격차(protection gap)³⁾는 지난 4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Swiss Re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 금액은 1.8조 달러이며, 이의 70%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아 약 1.3조 달러의 보상격차가 발생함.
- 향후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비용이 증가할 경우, 일반손해보험이나 손실 경감 방안을 통해 보상하지 않는 한 일반손해 보상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2014년 기준 세계 일반손해보험(property insurance) 수입보험료는 4,130억 달러로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25%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선진국 시장은 3,530억 달러로 세계 일반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86%를 차지함.

- 미국은 자연재해 노출 빈도가 높아 일반손해보험 침투율도 높은 편으로, 2014년 미국의 일반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76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일반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43%를 차지함.
- 유럽 국가 중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일반손해보험 시장이 큰 편이며, 2014년 일본의 일반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69억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함.
- 중국은 신흥국 중 일반손해보험 시장이 가장 큰 국가로서 2014년 기준 120억 달러의 일반손해보험 수입보험료를 기록함.

1) 동 보고서에서 일반손해 위험은 건물 및 화재, 도난, 수해에 따른 내부 위험(contents risk), 휴업 위험(business interruption risk)을 일컬음.
 2)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보험임. 일부보험은 완전한 무보험(completely uninsured),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 제한적인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상, 자산의 과소평가 보상으로 분류됨.
 3)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

■ Swiss Re 전망 데이터는 향후 자연재해로 발생할 세계 총 손실 금액은 약 연간 2,1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보상격차로 인한 손실 금액도 이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Swiss Re 전망 데이터는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세계 총 손실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보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손실 금액의 70%를 차지하는 연간 1,5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동 보고서는 Swiss Re의 자연재해 위험 측정모델인 MultiSNAP을 활용하여 30개국⁴⁾을 대상으로 자연재해⁵⁾로 인한 손실 금액의 예상치가 측정되었으며, 자연재해의 보상격차는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보상격차로 인한 손실 금액 절대치⁶⁾는 연간 810억 달러로 세계 총 손실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위 3개국의 보상격차로 인한 손실 금액 절대치는 조사 대상 국가 30개국의 보상격차로 인한 손실 금액(1,200억 달러)의 60% 이상을 차지함.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진이 손실 금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 범람이 약 50%를 차지함.
- 신흥국의 자연재해 보상격차 손실 금액의 절대치는 높지는 않지만 경제적 손실의 80~100%가 보상되지 않는 등 보상격차가 선진국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남.
 - 신흥국 경제 발전으로 재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세계 보상격차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일부보험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수해, 휴업, 도난 등 전반적인 일반손해 위험(general property risk)으로도 발생함.

- 전반적인 일반손해 위험은 선진국의 경우 위험부담이 커서 보험보상불가(uninsurable) 또는 재산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반면, 신흥국의 경우 보험침투율이 낮아 발생함.

■ 일부보험에 따른 보상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상품 및 판매채널 혁신, 소액보험, 결합상품 등의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규제 및 특정 보험 의무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Swiss Re 등)

4)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중국, 멕시코,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신흥국을 포함함.

5) 지진, 폭풍, 범람 등 주요 3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예상치가 측정됨.

6) 3개국의 절대치는 자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 수, 지리적 위치, 재산 가치 등에 따라 예측됨.